

안방극장 속 대세 악역 '비리 검사'

검은돈·증거 조작·성매매 등
픽션 언급에도 현실 개연성 높아
시청자 분노 유발 ... 시청률 상승

TV 드라마에서 잇따라 '비리 검사'가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연쇄 살인마나 부도덕한 재벌, 악녀의 자리를 '비리 검사'가 채우며 시청자의 분노를 끌고 간다.

1995년 '모래시계'의 검사 '강우석'은 청렴과 불편 부담의 상징이었지만, 2017년 안방을 채우는 드라마의 검사들은 하나같이 '비리 검사'다. 현실의 검찰 개혁 바람과 맞물리는 발빠른 행보라는 시선과 너도나도 '분노 상업주의'에 발을 담그는 시선이 공존한다. 어느 쪽이든 검찰에 대한 시청자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 뇌물·증거조작·성매매 등 다채로운 비리 = 지난 10일 시작한 tvN 주말극 '비밀의 숲'은 검찰 조직에 두루 돈을 뿌리고 다녔던 한 스폰서가 살해된 사건에서 출발한다. 지검 차장 검사가 그 정점에서 서 있고 경찰서장 등 경찰조직까지 검은돈의 마수는 뻗어 있었다. 검사의 수뢰, 증거조작, 성매매는 기본이고 조금만 더 파면 살인교사까지 나올 태세다.

'비리 덩어리'인 차장 검사의 자신감은 끝이 없다. 자신의 비리를 깨는 후배 검사에게 '뒷배'를 제안하며 그를 포섭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차기 지검장 자리가 "99.9%" 자신에게 온다고 말한다.

OCN 주말극 '듀얼'의 주인공 검사와 형사는 나란히 사건 무마 대가로 5억 원씩 챙겼다. '전직'도 있다. 검은돈을 쟁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SBS TV 수목극 '수상한 파트너'에서는 한 지방 검찰청장이 증거를 조작하고, MBC TV 월화극 '파수꾼'에서는 자기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권력에만 눈이 먼 검사들이 등장한다.

앞서 지난 3월 끝난 SBS TV '피고인'과 5월 끝난 SBS TV "콧속말"은 '비리 법조인' 집합소였다. '피고인'은 재벌의 달콤한 돈과 결탁한 비리 검사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이야기를, '콧속말'은 '스폰서 검사'로 떠돌며 악연론을 장식하고 웃을 벗은 자를 비롯해 각종 비리로 더러워진 판사, 검사, 변호사를 줄줄이 등장시켰다.

◇ '현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과연? = '비밀의 숲', '콧속말' 등은 드라마 시작에 앞서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현실과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안내 자막을 내보낸다.

하지만 드라마 내용은 그렇지 않다. '콧속말'에는



▲ '피고인', '비밀의 숲', '콧속말' (사진 위쪽부터 시계방향)

실제 뉴스를 장식했던 검찰의 비리가 담겼고, '비밀의 숲' 역시 많은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차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치 검찰' '스폰서 검사'에 관한 뉴스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시청자 입장에서 드라마 내용이 현실과 관계가 없기는 커녕 매우 개연성이 높게 다가온다.

검찰을 넘어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 법을 다루는 자들의 비리를 정조준한 '콧속말'의 박경수 작가는 법을 이용한 도적들을 '법비'(法匪)라고 규정했다. 법을 다룬다면서 법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법적 지식을 이용해 범법을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들의 행태를 조망했다.

앞서 김영섭 SBS드라마본부장은 '피고인'과 '콧속말'에 대해 "시대적 현실에 맞는 이야기로 시청자의 호응을 얻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조망하지는 않았을 뿐, 최근

드라마 속 비리 검사의 모습은 여러 검찰 비리를 뭉뚱그려놓은 형상이다. 현실의 뉴스를 보며 생겨난 시청자의 분노는 드라마로 옮겨와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막장 드라마 속 악녀가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아 떨겠다는 시청자의 심리나, '비리 검사'가 웃을 벗고 감옥에 갈 것을 봐야겠다는 마음이나 분노를 자양분으로 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이로 인해 자 극적인 '분노 상업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밀의 숲' 제작진은 13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의로운'이라며 "주인공 조승우 씨가 '이 시대 거울과도 같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시대에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 드라마는 시작은 현실보다는 몇 발 느리지만, 결말에서는 현실보다 한발 앞섰다. '비리 검사'는 결국 정의로운 검사의 손에 잡히게 되고, 드라마는 "그 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말한다. /연합뉴스

이유리, SBS '싱글와이프' MC 발탁

배우 이유리(사진)가 SBS TV 새 예능 프로그램 '싱글와이프'의 MC로 나선다.

SBS는 "이유리가 오는 21일 밤 11시 10분 방송하는 '싱글와이프'의 MC를 맡아 7년 차 주부로서의 고충을 토론했고 주부들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공개된 티저영상에서 이유리는 "결혼한 지 7년 됐다. 결혼 이후, 아내이자 주부로 살아가며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낀다. 너무나 것 아니냐? 특히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대한민국의 주부들은 정말 잠들기 전 30분쯤 개인 시간을 갖기도 힘들다"고 토론했다.

제작진은 "이유리가 토크쇼 MC로서 스튜디오에서 남편들과 함께 화면을 보며 아내의 입장을 대변해 줄 예정"이라며 "본인이 그동안 결혼생활을 통해 느꼈던 점을 남편들 사이에서 소신 있게 이야기해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부들의 결혼 안식 휴가'를 콘셉트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개그맨 남희석과 아내 이경민, 배우 서현철과 아내 정재은, 가수 김창렬과 아내 장재희, 배우 이진희와 전혜진 부부가 출연한다. /연합뉴스



마마무 컴백 ... 새 앨범 '퍼플' 22일 공개

걸그룹 마마무(사진)가 새 미니앨범 '퍼플'(Purple)로 컴백한다.

소속사 RBW는 마마무가 22일 오후 6시 다섯 번째 미니앨범 '퍼플'을 공개하고 타이틀곡 '나로 말할 것 같으면'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앨범에는 타이틀곡을 비롯해 일렉트로닉 댄스곡 '파이널리'(Finally), 지난 3월 마마무 앙코르 공연에서 선보인 '구차해', 댄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깜짝 공개된 '아재개그', 팝가수 재프 버넷·신에 비오와 함께 작업한 '다라다'(DA RA DA) 등 5곡이 수록됐다. /연합뉴스

소속사는 "이번 앨범도 데뷔 때부터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작곡가 김도훈과 호흡을 맞췄다"며 "멤버들이 직접 작곡, 작사에도 참여해 자신들의 음악 색깔을 다졌다"고 말했다.

2014년 데뷔한 마마무는 '미스터 에매호호'(2014)를 시작으로 '피아노 맨'(2014), '음오아에'(2015), '1cm의 자존심'(2016), '넌 이즈(is) 땀' (2016), '데칼코마니'(2016)까지 펑키, R&B, 블루스 장르까지 넘나들며 차트에서 '롱런'해 '민들레' (민고 듣는 마마무)란 수식어를 얻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국회인사청문회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수부장관
10	00 국회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11		00 속보이뉴스 TV 인사이드 (재)		
12	00 KBS 뉴스 12	00 7일의 왕비(재)	00 MBC 정오뉴스 20 군주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총조립 55 데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꾸러기 식사교실	55 닥터 365
2	00 국회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00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국회인사청문회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수부장관
3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수상한 파트너 (재) 45 날씨와 생활 5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7일의 왕비 1~4회 특별판	55 별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2017 드림콘서트
12	30 특선 UHD 다큐멘터리 넥스트 휴먼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15:05 두키탐험대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09:40 글로벌 애매 찾아 삼만리(재)	15:20 마사와 곰	<엄홍길의 나마스레 내팔
<아시아민속스포츠 마을의 민속놀이 중국 강족의 패유절>	10:30 한국기행	15:35 모피와 친구들	- 휴식같은 친구 내내 바자르>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꽃피기조림과 어록 마늘총부음>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아웃도어 인생 그들이 사는 법>
07:00 꼬마버스 타요(1)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땀땀 땀땀 1~2(재)	<아버지의 굴레>
07:45 출동! 슈퍼웬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5 뽀롱뽀롱 뽀로로	22:45 극한직업
08:00 땀땀 땀땀 1~2	12:40 지식채널 e	17:30 로보가 폴리	<귀금속 가짜>
08:30 똑딱맨	12:45 EBS초대석(재)	17:45 똑딱맨(재)	23:35 장수의 비밀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18:00 생방송 특!톡 보너스나1~4	24:25 지식채널e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고전, 인간을 말하다 일리아스>	19:00 어벤져스: 울트론 레볼루션	24:30 EBS 초대석
09:15 연마 꾸러기(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9:30 EBS 뉴스	<자신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15:00 그림을 그려요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 소통 전문가 김창욱>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4일 (음 5월 20일 壬申)	
子	48년생 직접 접해 봐야만 얻는 바가 있느니라. 60년생 간담의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리라. 72년생 정확성만이 후일의 안전을 담보하리라. 84년생 충분히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25, 96	午	42년생 애대를 필요 없다. 54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66년생 저번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행운의 폭포수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떨어지리라. 90년생 모든 가능성 열여 놓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98
丑	49년생 반작용의 현상이 놀랄 수도 있다. 61년생 소신대로 행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3년생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로다. 85년생 발로 하지 못할 처지나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만나보고 논하라. 행운의 숫자 : 17, 05	未	43년생 변경시키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라. 55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공무진한 발전이 보인다. 67년생 피단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기회들이 드러난다. 91년생 단단히 각오하라. 행운의 숫자 : 41, 04
寅	50년생 곁길의 노력을 기울여야 성취할 수 있겠다. 62년생 거의 비슷한 시세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74년생 사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을 금방 인식하리라. 86년생 말바탕에 해법의 열쇠가 내재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1, 60	申	44년생 변화하는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감응해야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6년생 전대미문의 파문을 풀고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68년생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성사된다. 80년생 경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65
卯	51년생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현상을 동반하게 되리라. 63년생 객관적인 인식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끌 것이나 예단이나 추측은 금물이다. 75년생 용기와 지혜가 겸비되어야만 이룰 수 있다. 87년생 제한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08	酉	45년생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방비 한다면 뒤늦게 맞는 꼴을 야기할 수도 있다. 57년생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69년생 끼어들면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될 여지가 있다. 81년생 참으로 기가 막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93
辰	52년생 어중간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64년생 고단함은 미래의 결실을 기약한다. 76년생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그다지 힘들지 않고 차지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0, 37	戌	46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58년생 형세가 전환하는 단계이므로 더 약화 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70년생 풍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82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03, 33
巳	53년생 현대에 국한시키지 말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65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77년생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89년생 할리 버리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8, 27	亥	47년생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59년생 무던하게 대하는 것도 괜찮다. 71년생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니 조금만 더 힘써 버라. 83년생 거의 비슷한 시세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6, 2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